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3.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 새벽별의 노래따라 힘찬 찬송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 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5 설 가정예식 순서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되세요

예배순서

찬송가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찬송 음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도 잘 극복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 신명기 6:6-7 ----- 인 도 자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나눔 ----- ‘믿음의 가정’ ----- 인 도 자 가정을 위한 ----- 다 같 이 합심기도 -----

찬 송 ---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다 같 이

주 기도문 ----- 다 같 이

믿음의 가정

설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는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이라는 개념을 말하며, 가족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신앙이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교육하고 실천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은 가정이 신앙의 터전이 되는 방법 &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가정은 신앙 교육의 첫 번째 터전입니다.

신명기 6장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고 들려주는 것을 넘어,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삶을 이루어가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부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출석만 강조하기보단,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내 뒷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말입니다.

2. 가족 신앙은 개인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중요한 터전입니다. 하지만 가족 신앙은 가계 전통을 넘어 개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양육되어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개인 신앙으로 잇대어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다른 세대(Another·G)가 아닌 다음 세대(샷 2:10)가 되어지게 말입니다.

3.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대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작은 공동체로 가정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공동체를 확장 시키어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족장 시대를 열었고, 12지파로까지 열려져 갔습니다. 나아가 12지파는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수 집단에 불과한 가정이 가지는 힘이며, 영적 신비인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사24:2) 아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나날이 살아나는 우리 각자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세우는 가정의 실천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마중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성하여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